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6호 [루게 제24924호] 주제104(2015)년 5월 26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략잠수함 탄도
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함으
로써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
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
인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춘섭동지, 리병철동지가 여기
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한없는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
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참가자들은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
잠수함건조와 탄도탄제작을 직접
발기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주시었으며 수중시험발사
장에까지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며 오늘의 자랑찬 성과를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성공과 승리
의 영광을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탄도

탄수중발사기술을 완성하게 된것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
을 만방에 떨친 또 하나의 력사적
사변이라고 하시면서 위력한 전략무
기를 개발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전투적
파업을 결사관철하려는 국방과학
부문과 군수공장의 과학자, 기술
자, 로동자, 일군들의 불타는 충정
과 고결한 애국심, 견인불발의

의지가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에 이룩한 성과는 우리 군대와 인
민에게 당의 경도밑에 끊임없이 강화
되고있는 우리의 국력에 대한 한없는
공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었
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치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
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가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
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백두에서 창조된 연길폭탄

정신, 1950년대의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중앙의 전략적기도
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을
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리
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지키며 우리 나라를 천하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가는
투쟁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해갈 불타
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낸 서한

주제 104 (2015)년 5월 25일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민족사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을 뜻깊게 경축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히종만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무어주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공민단체입니다.

총련이 걸은 자랑스러운 역사에는 총련을 전체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주체적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인,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아갈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생사기로운 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현명한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주체의 첫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무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매 단계마다 총련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사랑의 한뼘에 안아 영광의 길에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총련을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키우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일군대오를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일심단결의 대오로 다져주시였으며 선군의 보검으로 총련을 굳건히 지켜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을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으로, 재일동포들을 친혈육처럼 여기시며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에도 총련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물질량면의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 총련은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자랑떨칠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총련이 걸어온 지난 60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이며 수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전설로 수놓아진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서 총련은 지난 60년간 영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민족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총련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대오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총련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실현해나가는것을 본분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의 애국조직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조직으로서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는것은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입니다.

총련은 애국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조직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이역방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족교육을 통하여 동포자녀들이 참된 애국자로 자라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를 빛내일 청년핵심들과 젊은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새 세대 동포군중핵심들이 육성되며 애국충정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는것은 총련의 긍지이고 힘의 원동력입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조국인민들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면서 조국의 통성변명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총련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으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기 수령과 조국, 자기 민족에게 끝없이 충실한 애국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가지고있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총련의 결성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 에 한생 바친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로세대 총련일군들과 애국적동포들에게 경의를 드리며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총련애국위업 수행에 모든 힘과 열정을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조국인민들의 총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사고 있습니다.

총련에서는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총련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수령님들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일군들은 일심단결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중앙지도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야 하며 동지적단결로 시작된 애국위업을 동지애의 위력으로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들은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동포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하여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 힘을 집중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신념교양을 심화시켜 모든 총련일군들과 새 세대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성과 총련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전세계들이 걸어온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역세계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현실적요구와 조건에 맞게 선전교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실효성있는 새로운 선전선동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선전물들을 독자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대상화, 통속화하여

그 견인력을 높여야 합니다. 금강산가극단과 지방가극단들은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주체적해외민족예술부대답게 동포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는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넋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총련조직을 동포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힘있는 애국조직으로 꾸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들로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거점인 지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인 분회조직들을 활성화하여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은 동포대중속에서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각계층 동포들을 더 많이 묶어세움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모든 사업에서 군중로선을 틀어쥐고 동포들의 생활상편의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동포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주체적애국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동포되찾기운동에 전조직적인 힘을 넣으며 이 운동을 다양한 민족문화운동과 대중체육활동, 권리옹호운동, 봉사복지활동과 밀착시켜나감으로써 동포들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들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위력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 청년들과의 사업,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총련의 기본사명이며 임무입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교육권과 기업권,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 등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동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차별조치들과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총련의 인재양성기지답게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 학생들을 참다운 애국자, 유능한 전문가들로 키워냄으로써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교포대학으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떨쳐야 합니다.

재일동포사회에서 새 세대들이 총련애국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도는 동포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총련에서는 청년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들로 키워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는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유산들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하며 동포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지 않고 멋있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에서도 새 세대 동포녀성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이 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곳곳이 지키면서 총련애국사업의 한축수레바퀴를 떠밀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기본공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인 동포상공인들이 총련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성심성의로 방조하여 그들이 상기업

활동을 활력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애국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애국지성을 바쳐야 합니다.

해외동포들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되어있으며 조국이 강대하여야 해외교포조직들과 해외동포들의 권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며 힘있는 사람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민단》계 동포들과의 민족적단결을 강화하고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일본의 각계층 진보적인사들과 일본인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총련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조일관계발전 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려면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게 총련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지도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총련중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체원칙에 따라 토의결정된 문제들을 일관성있게 집행해나가며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헌분부들에서는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지도단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중앙단체, 사업체들은 자기의 특성에 맞게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지도와 방조를 아래에 접근시켜 자기 분야의 애국사업을 믿음직하게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조직의 실정과 동포사회의 현실에 맞게 사업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참신한 일본새, 로속하고 능란한 사업방법으로 약동하며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총련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총련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늘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선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동포들이 총련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할것입니다.

나는 총련일군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이 앞으로 변함없이 사회주의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전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모임을 크나큰 감격과 뉘우침으로 총련의 열정속에 거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분초를 쫓아내면서 전투명도하시는 그로써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친히 강령적서한을 보내주신것은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영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사에 역사적리표표를 새겨주시고 총련사업에서 전환적극면을 열어주시는 역사적사건입니다.

모임에 참가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의 구절구절마다 뜨겁게 새겨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원수님의 친애이시음을 한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으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최우승리를 앞당겨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겼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민족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면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강령적서한을 친히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에 보다 큰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한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서한에서 총련이 걸어온 60년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이며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전설로 수놓아진 애로운 사랑의 력사로 밝혀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서 이룩한 총련의 성과와 참모습, 총련의 긍지와 힘의 원동력을 천명하셨으니 우리들은 대를 이어 받아안은 수령복에 격정을 금할수 없으며 총련의 자랑찬 전통을 더욱 뜻깊이 이어 나갈 열화같은 맹세로 가슴부풀어오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판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사업방향과 중심과업,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총련사업의 강령적지침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장속에서 용인처럼 소용돌이치는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와 총정의 마음이며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철석의 신념입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시대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며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 올리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유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보다 확고히 세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총련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깊이 빛내이며 수령님들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일군들은 일심단결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천하지대본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중앙지도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 굳게 뭉치겠습니다.

그러하여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동포들과 하나

로 굳게 뭉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시대로 총련인군들과 동포들의 정성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임으로써 전세계대들이 걸어온 애국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조직을 동포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힘있는 애국조직으로 꾸러나가겠습니다.

총련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초조직들을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성토로 더욱 굳건히 다지며 군중조직을 틀어쥐고 동포들의 생활상선과 리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동포들의 애국애국의 열의와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련의 활기찬 운동을 다양한 민족문화운동과 대중체육활동, 권리옹호운동, 봉사복지활동과 밀착시켜 동포들이 주인이 되어 추진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총련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을 기본사업, 임무로 틀어쥐고 동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차별조치와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들을 반대하여 결연히 투쟁하겠습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세 세대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절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대를 이어 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로 키우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인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총련인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충정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총련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국제적권위를 옹호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조일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여나갑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를 전면적으로 세우고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총련의 실정과 동포사회의 현실에 맞게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입니다.

전체 총련인군들은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못나가는 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불멸의 의지로 늘 동포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동포들에게 북부하며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새 전성기에도 동포대중을 총발동시키는 조직자, 선전자로 살며 일하겠습니다.

그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데로 앞으로 더욱 변함없이 사회주의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여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보란듯이 열어놓음으로써 활약하며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반드시 창조해나갈 것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담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계승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주체위업을 최우승리로 끝내려 명도하시는 조국과 민족,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이며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 104(2015)년 5월 25일 일본 도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오셨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제 100년대 애국애국운동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 60돐을 크나큰 긍지와 감격속에서 맞이하였습니다.

60성상의 력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경사를 맞이한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필승의 보검으로 높이 추켜들고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더욱 더 빛내일 불같은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뜻있는 애국애국의 결성기념일에 즈음하여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총련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총련을 애국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총정의 한마음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불망한 영광을 드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에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총련이 걸어온 60년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에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시련을 열고 승리와 존엄을 떨쳐온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로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존엄의 갈림길에 서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주체적방법으로 분석하시고 독창적인 로선전환방향을 제시하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었으며 주체의 첫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몸소 무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우시고 총련의 강화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강령적교시와 자애로운 사랑으로 총련을 영광의 길로 령도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형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한몸에 안아주시고 전체적인 예지와 권리해안으로 총련의 걸음걸음을 확히 밝혀주셨으며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총련이 신심드높이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총련조직을 고수보존하고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로고를 다 바치시며 재일동포들을 한몸에 안아 온 갖 사랑과 은덕을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진정 재일동포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 대양이시었고 우리들의 한없이 인자하신 어버이이셨습니다.

총련결성 60돐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수록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뚫어오르는것은 숭고한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데없는 영광과 행복, 우리 민족만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한 커다란 긍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전투에서 현명하게 이끄시고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운동을

공격적으로 령도하시는 그로써 분망하신 나날에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창조적예지와 친애어버이사람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주제 101(2012)년에 친히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거룩하신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거듭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데없는 특전을 배풀어주시었으며 오늘은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으니 하늘과 바다에도 비기지 못할 크나큰 영광에 복받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넓고넓은 한몸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 비추주시고 만년을 필승의 보검으로 파갈리고 새로운 혁신으로 떠밀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가장 뜨거운 감사와 경모, 열렬한 축하의 한마음을 안고 뜻깊은 총련결성 60돐을 맞이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의 길, 애국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을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거머잡아 관철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적중심으로 모시고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새 전성기를 기어 올리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며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유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초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시켜 총련조직을 동포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힘있는 애국조직으로 꾸러나가겠습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 청년들과의 사업,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서 전환적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애국적정신을 바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며 조국통일위업성취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신념을 옹위하고 조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대외활동을 힘있게 벌이며 일본의 각계중 진보적인사들과 일본인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맞게 총련의 사업체계를 전면적으로 세우고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모든 일군들이 동포애일주의의 구호를 들고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우리모두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경모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의 수호자이시며 겨레의 세기적명원인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인류의 찬란한 대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 104(2015)년 5월 25일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 기념우표 발행

【평양 5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대를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해외교포조직으로 반석같이 다져갈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열의가 기념우표에 반영되어 있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헌명수령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사진문헌을 모신 우표가 뒤날리는 람복색공화국기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결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주신 말씀이 모서져있다.

이밖에도 소형전지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기념》, 《주제 44(1955)-주제 104(2015)》라는 글말이 새겨져있다.

기념우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찬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을 고무하게 될것이다.



총련인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결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데로 해나가자 합니다.

김정은

조선우표 DPR KOREA 주제 104(2015) 50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헌명수령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전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자,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군들, 비정일지역들, 조선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군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인 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부장, 배진주부부장, 사부총국장, 박구호부부장, 강주원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총련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봉태 조선대학 교장, 총련중앙 의정부, 국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경축

중앙대회에서 진행

【도쿄 5월 25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경축 중앙대회가 25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혁명의 선상 백두산모형과 함께 《주제 44(1955)-주제104(2015)》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총련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관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진주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박기호부의장,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인주거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총련중앙교포들,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

소 상임교포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와 지부일꾼들, 비전일꾼들,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일꾼들,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의 주악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보고를 허종만의장이 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낭독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총련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새로운 주제100년대 총

련의 진로인 주체의 길, 애국애군주의 길, 강성병영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총련의 유순을 관철하여 총련의 새 전성기를 기어 올려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대회는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어나가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경축 중앙대회에서 한 허종만의장의 보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총련평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자!

총련일꾼들과 동포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다란 감명과 드높은 긍지를 안고 주제적재일조선인운동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리정표를 새기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 6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중심으로 만들고 10월의 대추전성기를 향한 총공격전에서 날에 날다다 기적과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이며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이 60돐의 년륜을 새기게 된것은 세계해외교포운동사에 그 류례를 찾을수 없는 역사적사건이며 재일동포들의 일대 경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방한 진수에서도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친히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강령적인 서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대강이며 총련을 동포들의 행방과 후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성기를 조속히 이끌어주는 강령적지침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령적서한을 보내주시였을뿐 아니라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애국애군운동에 헌신분투하는 오랜 활동가들 비롯한 총련일꾼들과 동포사공들, 애국적 동포들의 총정신과 공력을 평가하여 국가수호의 영예와 명예칭호를 안겨주시는 각별한 배려까지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정경 총련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대와 같은 은총에 저희들은 무반으로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에서 총련결성 60돐을 기념하는 중앙보고회와 기념행사를 조직해주시고 배위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들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감사단과 총련로감부대표, 각계 총동포들이 조국인민들과 함께 총련결성을 열렬히 경축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습니다.

저는 총련결성 6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흥모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새로운 주제100년대 대추전성기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상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련의 결성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애국총정의 길에 고귀한 헌성을 바친 고 한덕수의장동지와 리진규제 1부의장동지, 서민들의장동지를 비롯한 전대의 로간부들과 일꾼들, 애국적인 사공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풍파사나 일본땅에서 곁을

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갑히 뚫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 성스러운 애국애군업에 헌신해왔으며 총련결성 60돐을 새로운 전성기여로의 비약의 성과로 빛내이는 혁신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는 경사를 맞이한 총련본부, 지부, 분회와 단체의 모든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기치를 높이 추켜는 때로부터 오늘까지의 60년세월 우리 총련은 바람세찬 일터에서 튼튼한 시련과 역경의 고비들을 넘고넘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를 중심으로 만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군업무를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총련의 영광찬년 년대기를 새기며 새길수록 우리는 오늘도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사수하는 그로움으로 가슴끓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모시고 애국애군의 한걸음 변함없이 걸어온 헌없는 영광과 행운으로 하여 좃겨쳐 오르는 직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총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에는 총련을 전체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는 주체적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가 빛나도록 수많은 총성비까지 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신, 해외교포들의 본보기가 되주시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이십니다.

총련이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결성 이래 일찍이 시련과 역경을 헤쳐야 했던 엄혹한 시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안아 보살펴주시며 베풀어주시는 열정이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남다른 총련의 운동사에 금문자로 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업무를 승리로 령도하시면서 준엄한 나시던 1995년 5월 24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들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백과편사적인 지침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기를 앞둔 1999년 4월 20일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을 전진할때 대한 강령적인 교시로서 새 세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일꾼대오와 강성국가건설업무를 승리로 령도하시면서 준엄한 나시던 1995년 5월 24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들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백과편사적인 지침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기를 앞둔 1999년 4월 20일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을 전진할때 대한 강령적인 교시로서 새 세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업무를 승리로 령도하시면서 준엄한 나시던 1995년 5월 24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들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백과편사적인 지침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기를 앞둔 1999년 4월 20일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을 전진할때 대한 강령적인 교시로서 새 세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업무를 승리로 령도하시면서 준엄한 나시던 1995년 5월 24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들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백과편사적인 지침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기를 앞둔 1999년 4월 20일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을 전진할때 대한 강령적인 교시로서 새 세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업무를 승리로 령도하시면서 준엄한 나시던 1995년 5월 24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들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백과편사적인 지침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기를 앞둔 1999년 4월 20일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을 전진할때 대한 강령적인 교시로서 새 세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업무를 승리로 령도하시면서 준엄한 나시던 1995년 5월 24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들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백과편사적인 지침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기를 앞둔 1999년 4월 20일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을 전진할때 대한 강령적인 교시로서 새 세기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추모행사에 총련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도량질 100돐과 첫 광명성절에는 총련본부와 지부위원장들, 청상회와 조정, 교육일꾼들을 경축행사의 맨앞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서는 총련의 대표단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여주시는 최상위의 은정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결성 60돐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